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손보업계, 상반기 실적 감소 불구 순이익 실현

- 최근 일본 주요 손해보험 회사들이 공개한 상반기(4~9월) 실적 결산자료에 따르면,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료 수입은 감소한 반면 자산운용수익을 회복과 보험금 지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 - 보험료 부문에서는 차량 판매 및 건설경기 침체로 손해보험 주력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해외 자회사 매출이 크게 증가한 도교해상을 제외하고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함.
 - 이익 부문에서는 유가증권 평가손 및 금융보증보험 등 금융 관련 손실이 크게 감소하고 엔고 영향으로 해외보험 지급액이 감소한 결과 주요 보험회사들 모두 전년동기대비 30%~350% 증가함.

일본 주요 손해보험회사 상반기(4~9월) 실적

회사명	원수보험료	순손익
도교해상	1조 1,827억엔(2.2%)	712억엔(290%)
미츠이스미토모해상	7,115억엔(-6.3%)	568억엔(350%)
손보재팬	6,569억엔(-4.7%)	293억엔(29.1%)
아이오이손보	4,086억엔(-5.1%)	171억엔(190%)
니혼고아	3,527억엔(-5.5%)	188억엔(47.2%)
닛세이도와	1,549억엔(-0.5%)	35억엔(41.5%)

자료 : FujiSankei Business I (2009.11.20)

- 전문가들은 손해보험업계가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에서 다소 회복하고 있으나, 내수시장 축소 등 불투명 보험환경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인수합병과 같은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 - 상반기 순이익 실현은 금융환경 개선, 자연재해 감소(지급보험금 급감), 엔고 효과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지 저출산, 고령화,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시장 축소 등 보험환경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임.
 - 따라서 전문가들은 업계가 현재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한편, 비용절감 및 판매력 강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으로 예정된 기업 간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조언하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I, 11/20)